

전년보다 7.1% 증액... 100년 먹거리 창출 '속도'

희망찬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전북 특별자치도 개막과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로 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지난해 연말 국가예산 역대 최대액 확보로 100년 먹거리 창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고창군의 2024년 국가예산 확보 성과를 분석했다
/편집자주

올해 새로 반영 신규사업 47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
신활력산단 공공폐수처리 증설 등
국회 단계서 국가예산 사업 확정
고창 통합보훈회관 건립 등도 반영



김치산업 발전 포럼



민주당과 정책협의회



중앙부처 현지대응 전략회의

고창군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행보가 결실을 맺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고창군의 올해 국가예산 확보액은 1,910억원 규모로 지난해 확보액(1,784억원) 대비 126억원 늘었다.

2024년 정부 예산 증가율은 역대 최저 상황인 2.8%이며 고창군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7.1%로써 전국 최고 수준이다.

2024년에 새롭게 반영된 신규사업은 총 47건으로 특히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290억원)',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고창신활력산단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39억원)' 등 숙원 사업이 12월 국회 단계에서 국가예산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290억원)

고창군은 배추, 무, 고추, 양파, 소금 등 김치원료 농산물의 전국 최대 생산지 중 하나다.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사시사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예산 290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2027년까지 고창군에 저온저장고 20동(75평형)과 절임가공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사업은 최근 김치소비 환경이 김치 가공공장 등에서 생산되는 완제품 소비 형태로 변화함에 따라 가공공장에 사시사철 안정적인 원료를 납품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김치원료의 원료거점을 구축해 김치 양념산업 육성, 식자재 유통, 홍수출하기 농산물 불류 수급조절 등

고창군의 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민선8기 고창군은 우수한 농업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김치산업 육성이라는 목표로 관련산업 육성과 국가예산 확보에 모든 역량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4월에 김치절임산업 육성을 위해 전라북도 공모사업(특화품목 6차 산업화사업)에 참여하여 사업비 20억원을 확보하였다. 이 사업은 해설(hacpp) 인증 절임가공시설을 2025년까지 5개소 구축하고 관련 사업을 홍보 및 브랜드화 한다.

▲고창갯벌 세계유산지역센터 건립사업(170억원)

고창군은 2026년까지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 세계유산지역센터(전시실, 교육실, 연구실)를 건립해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전시·홍보·교육과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한 장소로 활용한다.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보전, 자연과 인간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이용 실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도 77호선 주변 고창갯벌과 현재 추진 중인 노을대교와 연계·개발하기 위해 야간경관조명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사업' 등 총사업비 60억원 확보해 올해 밑그림을 완성해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운곡 랍사트 습지센터 건립사업(80억원)

운곡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운곡 랍사

트 습지센터 건립을 위한 국비 56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 80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습지센터 건립은 3개년 사업으로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2026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운곡습지 일원에 지상 2층 건축면적 1,500㎡ 규모다.

주요시설로는 체험홍보시설인 습지전시관과 영상교육실, 체험교육실 등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습지정원, 잔디광장, 친환경주차장 등의 관광객 편의시설이 마련될 것이며, 주변 6개 마을의 주민 협의체(고창생태관광주민 사회협동조합)과 연계하여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생태교육·홍보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고창군은 △고창신활력산단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사업(39억원), △고창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43억원) △무장·군유·대장 하수관로 정비 사업(182억원), △대산 가뭄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180억원) 등 대형 국가예산사업이 대거 반영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함께 농림부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국회 단계에서 고창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 국회의원의 협력을 이끌어냈다"며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예술·관광 등 매력 자산을 활용해 산업화하고, 강한 경제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이 모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10회 무주 반디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17일(수)~1월 18일(목)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및 주관: 전주매일신문사
전라북도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